

올해 4분기 평균 돈가 3,100원 전망

- 9월 평균돈가는 3,450원 예상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돈계열팀

돈육소비가 줄어들고 출하물량이 늘어나는 4/4분기는 매년 돈가가 가장 하락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돈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출하두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 이유는 우선 농장의 번식 실적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이다. 10월과 11월 출하되는 돼지들은 6개월 전인 4월과 5월에 태어난 돼지인데 이때는 봄철에 매우 좋은 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어느 농장이고 분만사에서 자돈 육성율이 크게 향상되고 자돈사 환경 중에서 특히 환기가 좋아지면서 PMWS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부분의 농장에서도 이때는 좋은 육성율을 기록하게 된다. 따라서 출하 육성율이 대략 10%정도 향상 되게 된다.

게다가 4월과 5월에 자돈이 태어난 것은 교배가 1월과 2월에 들어간 것인데 이 때의 분만율은 연중에 평균 이상을 유지하여 분만복수 또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매년 4/4분기는 도축지수는 109.2를 기록하여 연중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가격은 이와는 정반대를 나타내게 된다.

최근 4년간의 4/4분기 평균 가격 지수는 90.5를 기록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최근 5개년간의 분기별 돼지 평균 도축지수와 평균 가격 지수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도축지수	99.4	95.1	96.3	109.2
가격지수	96.1	111.6	101.9	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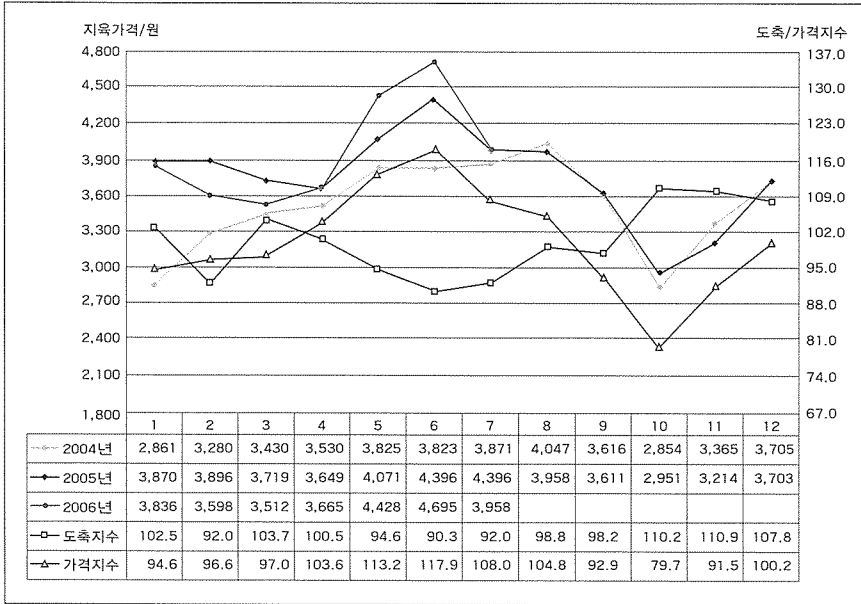
이렇게 가격이 급락하게 되는 이유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지나면서 추석 때 실컷 먹은 음식과 남은 음식들로 별도의 회식이나 고기 구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돈육 소비가 약 2주 동안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여름철 성장이 지연되어 출하가 늦어졌던 돼지가 성장을 회복하며 출하되고 4월, 5월 분만이 늘어나고 육성율이 좋아지면서 늘어난 출하두수가 겹쳐지면서 전 분기보다 13~15%정도 출하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때가 돼지 공급은 크게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면서 연중 최저 돈가를 기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10월 중순이 지나면서 외기 온도가 떨어지고 야외행사가 줄어들면서 야외행사에서 소비되던 돼지고기 소비가 크게 줄어들어 결국 공급의 대폭 증가와는 반대로 소비가 대폭 감소하면서 돼지 가격은 급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1월 중순 김장철이 되면서부

〈그림 1〉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의 월별 전국 지육 단가 동향



터 사정이 달라지게 된다.

각 가정마다 김장을 하게 되면서 보쌈용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고 12월이 되면 연말 망년회 등 각종 회식에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게 되어 돼지 가격 지수는 9월에 100이하로 내려 갔다가 12월이 되면 다시 100이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매년 보여왔다(〈그림 1〉 참조).

금년 4/4분기 돼지 가격 또한 이러한 추세를 계속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금년 4/4분기 돈육 시장의 최대 변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이다.

금년 3월에 재개되기로 하였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에 따라 수입 쇠고기가 돼지고기에 대체재가 되어 같은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수입 쇠고기 소비가 증가하게 될 것인가?

예상되는 판로는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소비처는 가정보다는 각종 양념갈비 시장과 식당 등에

서 매출 kg 당 마진이 높은 수입산 쇠고기를 전략적으로 판매 확산을 피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이때 대체재 성격을 갖는 돼지고기가 소비시장이 축소되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육가공 업체는 돼지 구매량을 줄이고 갈 곳이 없어진 산지 출하 돼지의 도매시장으로 출하량이 늘어나 도매시장의 가격은 더욱 하

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국내 돈육 시장의 가장 큰 변수이다(〈표 2〉 참조).

〈표 2〉 연도별 쇠고기 수입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단위 : 천톤)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쇠고기수입량	263.8	208.0	358.0	364.0	175.9	142.6
미국산쇠고기 수입량	146.3	118.3	227.6	248.7	27.8	0
비율(%)	55.5	56.9	63.6	68.3	15.8	0

〈표 2〉에서처럼 미국산 쇠고기는 2002년과 2003년 국내 전체 수입 쇠고기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경쟁력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 또 하나의 변수는 돼지고기 수입량이다 금년 7월까지 누계는 전년 동기 누계보다 2.5% 증가한 119,064톤이다.

그러나 자세히 내막을 살펴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우려한 육가

돈가전망

공 업체와 중간 상인들이 수입을 꺼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87% 정도만 수입하다가 4월 하순 이후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폭등하자 뒤늦게 수입을 크게 늘리면서 7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15,531톤을 수입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7월 중순 이후 폭락하는 돼지고기 가격 때문에 9월 이후 돼지 고기 수입을 크게 줄여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줄어들면서 전년과 비슷하거나 약 4~5% 증가한 18만여 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입산 돼지고기는 국내 돈가의 하락에 큰 영향을 주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수입 돼지고기가 주는 영향은 남아있는 냉동육 재고량이 많을 경우 국내산 소비 시장에서 일시적인 소비 감소 시기에 국내산 돼지고기 저장을 어렵게 만들면서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는 작용을 크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하두수에 영향을 미치는 월령별 사육두수 또한 국내산 돼지의 출하두수를 예상할 수 있다.

금년 6월까지 돼지 출하두수는 전년 동기 대

비 4.4% 감소한 6,372,577두를 기록하여 전체 돼지 고기 공급량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 들은 것은 사실이나 <그림 2>의 월령별 돼지 사육두수와 돈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금년 6월에는 전년과 다른 모양을 보이는데 가장 큰 변화는 모든 두수가 1백만 두를 넘어선 1,001,730두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4.78% 증가를 보였고 2개월령 미만 사육두수가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한 2,842,776두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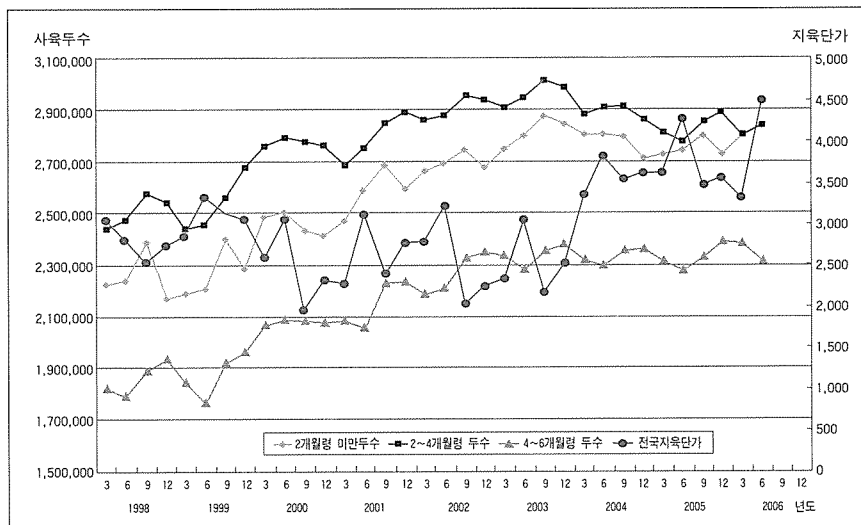
이러한 수치는 질병의 피해가 줄어들 경우 돼지 출하 두수의 증가를 예고 하는데 금년 상반기 부족했던 출하두수 296,409두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더라도 상당 부분 차이를 줄일 만큼 하반기 출하두수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변수는 9월과 10월의 환절기에 육성돈에 크게 유행하는 만성 소모성 질병인 호흡기 관련 폐사가 현재와 같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전제로 한 예상이고 예상과는 반대로 육성돈 폐사가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출하두수는 줄어들 것이다(<그림 2> 참조).

정확한 돼지 출하두수 예측이 사실 쉽지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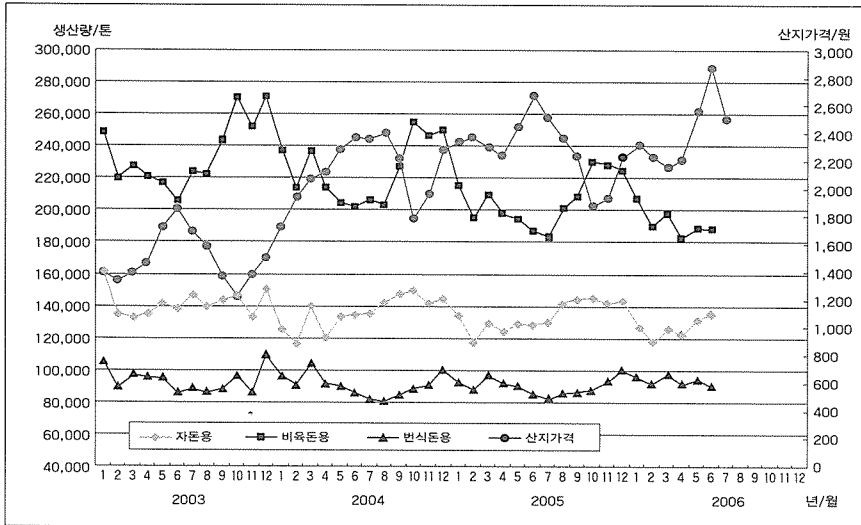
은 이유는 최근에는 워낙 다양한 소모성 질병이 전국적으로 양돈 농장들을 괴롭히고 있어서 상황을 예측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

금년 들어서면서부터 번식돈 사료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였고 자돈과 비육돈

<그림 2> 월령별 돼지 사육두수의 돈가 변화



〈그림 3〉 사료 생산량과 단가 변화



사료 생산량은 5월까지 줄어 들다가 6월부터 증가세로 반전하는 추세를 보여 금년 하반기 출하두수는 전년동기에 비하여 늘어날 것을 예고하고

3,700원 대에서 하순 3,100원대를 기록하며 월 평균 3,450원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4〉 참조). **양돈**

있다(〈그림 3〉 참조).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금년 4/4분기 양돈 경기는 전년 동기보다는 약세 형태를 보이면서 지육 kg당 150원에서 200원 정도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4/4분기 평균 지육단가는 3,10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9월 단가는 상순에는

〈그림 4〉 2006년 4/4분기 단가 전망

